

DOP, 앞으로의 행보도 불투명

원료 PA와 수요처 PVC의 중국 반덤핑 조사로 샌드위치 신세

DOP(Dioctyl Phthalate)의 Up Stream인 PA(Phthalic Anhydride)와 Down Stream인 PVC(Polyvinyl Chloride)가 중국의 반덤핑 예비관정을 받아 DOP의 행보가 불투명하게 됐다.

DOP는 대부분 PVC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PVC 역시 중국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국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PVC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DOP 수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DOP는 전체 가소제 수요의 80% 이상으로 가소제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PA와 PVC의 반덤핑 문제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국내 재고량이 늘어나 가격하락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DOP 가격은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은 편이며 원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시장에서의 채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잉여물량을 채산성이 낮은 수출시장으로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덤핑으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중국의 PA와 PVC 플랜트의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출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DOP 가격은 800달러대에 형성돼 있으며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DOP 가격상승세는 나프타와 O-X의 가격상승으로 PA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2-EH (2-Ethylhexanol) 가격 역시 밀받침해주었기 때문이다. 또 2002년 DOP 생산기업들이 가동률을 조절한 것도 가격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DOP 생산은 45만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3년 3월1일 동양제철화학이 KP Chemical의 가소제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동양제철화학의 DOP 생산능력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증가해 에경유화와 LG화학에 이어 국내 3위로 올라서게 됐다.

<Chemical Journal 2003/04/02>